

무안공항, 2018년엔 더 높이...더 멀리...



광주공항 이전이 공론화 되고 KTX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되면서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28일 밤 제주~무안 노선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선 KTX 경유 확정, 광주 민간공항 이전·중국 하늘길 재개 기대

대중교통망 확충·국제선 증편·활주로 연장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

2018년 새해에는 무안국제공항 하늘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선결 과제였던 호남고속철(KTX)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됐고, 끊겼던 중국 하늘길도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도 영진 실타래의 한 가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망 확충, 국내·국제선 증편, 활주로 연장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이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안공항은 개항 10년을 맞았지만, 국

제 정기선이 한 편도 없고 광주~무안공항 고속버스도 하루 1편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에만 12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호남고속철 경유가 확정되면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드 여파로 끊긴 중국 노선도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 다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시간 잠지 않는 공항의 장점을 활용한 동남아 국제선 취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포화 상태에 놓인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의 여건도 무안공항 활성화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비용 항

공사들이 무안공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팬퍼시픽, 코리아익스프레스, 에어필립 등 소규모 항공사들이 새롭게 취항하거나 취항을 앞두고 있다.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동남아나 일본, 러시아 등 무안과 가까운 지역의 비정기 노선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 노선도 재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계획 중인 흑산공항 개항까지 더해지면 무안공항은 더욱 탄력을 받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공항 일대 ‘항공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 자회사인 GMF, 말레이시아 투자사인 TWA와 항공정비(MRO)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 주변 39만㎡에 항공 특화산업단지를 개발해 임대한다. GMF는 항공정비와 관련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기술교육을 하고, TWA는 750억원 규모 시설 투자를 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고부가가치인 항공정비사업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관 산업 유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의 접근성 개선은 당장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서 고속도로만 뚫려있을뿐 대중교통망이 엉망이다. 광주에서 무안공항까지 고속버스는 하루 2회뿐이고, 무안터미널에서 공항까지도 가는 버스노선도 4편에 불과하다.

활주로 연장도 절실하다. 무안공항 활성

화의 필수 조건인 신규 노선 확보를 위해서는 대형기종 유치가 급선무인데 현재 활주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흑산공항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흑산공항이 개항되면 무안공항은 거점공항 역할을 통해 연계노선 확보가 가능해져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도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 직후 민선 7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새로운 동력을 바탕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초기가 무안공항 활성화의 최적기”라며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노선 확정 때와 같이 지역 정치권이 협력해 무안공항 활성화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방공공기관 모두 채용비리 있었다”

행안부 전국 659개 기관 조사

광주 2곳·전남 1곳 경찰 수사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내정, 친인척 및 특정인 특혜, 점수 조작 등 다양한 방법이 총동원됐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도시철도공사 등 2곳의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으며,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 1곳은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이 적발돼 행정안전부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를 진행한 행안부 감사담당관

실은 사실상 모든 지방공공기관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산하에는 공기업 4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17곳 등 23곳의 공공기관이, 전남도 산하에는 공기업 1곳, 출연기관 20곳 등 21곳의 공공기관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11월 1일부터 2개월간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채용 실적이 없는 기관 등 165개 기관을 제외한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330곳은 기획재정부, 지방공공기관 824곳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주관해 채용비리 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 주관으로 824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까지 실시했고, 이 중 추가조사가 필요한 40개 기관을 선정, 12월 4일부터 행

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년간 채용 실적이 없는 659개 기관 가운데 4분의3에 가까운 72.08%의 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476건 가운데 모집 공고 위반이 2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원 구성 부적절(216건), 규정 미비(164건), 부당한 평가기준(125건), 채용요건 미충족(11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정도가 심한 2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02건에 대해 관련 직원의 징계 및 문책, 566건에는 주의를 줬으며, 784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 문책(징계) 요구 등을 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 등 별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

문대통령, 재협상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와 관련,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TF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양국 정부 간 지난 합의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재협상 내지 합의의 폐기 수준으로 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에 따라 한일 양국 관계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유감스럽지만 피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수 앞바다 ‘고래들의 무덤’▶7면

양현종 23억 KIA와 재계약▶20면

2018년 1월 1일자 신문 쉼니다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하나투어**

무안
공항

추천여행 ①
캄보디아/앙코르왓

추천여행 ②
베트남/하노이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228-1199

하나Pack 캐주얼 AVPF10_VJ1

하롱베이 비경관광 포함
하노이·하롱베이·엔프 5일

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17년 12월 30일~18년 1월 31일

비엠펙항공(VJ항공)

치맥야식제공, 무제한 생수서비스, 특식3회(오삼불고기, 락비엠펙스테코, 노니보쌈정식)

하나Pack 클래식 ARPF01_ZA1

VIP 급행비자 포함
앙코르왓 4일·5일

총 상품가격 8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17년 12월 30일~18년 1월 27일(매주 수, 토)

스카이앙코르항공

앙코르토틀 특특이 투어, 특식 3회(쌈밥정식, 디너뷔페, 수끼)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임.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항공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니다.■[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지자체]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킹일 시점에 의해 여행일(일)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통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여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장선/불편점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명일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철수 권고 4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